

d = D ≠ d

광주가 디자인이다

“재택아, 어디냐? 돌아와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1980년 5월 사라져버린 아들을 예타게 찾는 엄마의 절규, 굵은 시절 희귀병을 앓아 시력을 잃고 점차 도서관에서 일 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디자인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또 광주 도심의 낡은 풍경 등 광주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색 작품이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 23일까지)를 장식하고 있다

먼저 ‘광주에서 걸려온 전화’는 목소리를 통해 광주 디자인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대학생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수십 명이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들려준다. 전시장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앞에 관람객이 서면, 전화벨이 울리고, 광주 시민들의 다양한 사연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 ‘광주거리학’은 광주의 도심 디자인의 패턴과 독창성 등을 보여준다. 작가가 직접 광주에 머물며 상가와 마을 뒷골목, 전통시장 등을 곳곳을 걸으며 사진을 담고 기록들을 모아 분류해낸 광주에 관한 기록들이

다. 때문, 간판 소주제를 정한 뒤 많은 양의 사진을 찍어 도시의 특성을 발견하고, 시각적으로 분석해 광주만의 디자인을 선사한다.

남광주시장에 좌판을 펼쳐놓은 아주머니와 빨간 고무 대야, 후미진 골목에 자리한 철 대문, 모델 주차장 입구의 천 가림막, 전단지 등을 붙였을 건물 벽의 청대이프의 흔적 등은 광주 시민이 만들어 낸 생활 속 디자인이다.

‘광주어린이 커뮤니티-아이의 노래’도 놓칠 수 없는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한적한 공간에 소리의 빗줄기처럼 일정간격으로 무수한 줄들이 매달려 있고, 아이들이 뛰어나니 다양한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다.아이의 움직임에 따라 맑은 동심의 방울소리가 울리며,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또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위한 도시 노래 길’은 지역적인 전통과 신화적 요소를 활용해 도시의 노래 길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광주폐선부지 살리기’도 광주만의 디자인을 선사한다. 홍콩 폴리테



흔들면 소리가 나는 긴 줄로 만든 이색 작품 ‘광주어린이 커뮤니티...’를 신기한 듯 관람객들이 만져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에서 걸려온 전화·도시 노래 길·안내모자·어번폴리...

디자인비엔날레, 광주 소재 다양한 이색 작품 대거 출품

크니대학 디자인학과 교수들이 주축인 팜오피스와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함께 작업한 기록영상과 자료, 지도들로 꾸며져 있다.

광주의 근현대사를 대변하는 공간이며, 하나의 통로이기도 한 푸른 길을 도시환경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작업이다.

이 밖에 ‘안내모자’는 작가가 도심

트 안내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답양 축제공 장인들에게 대나무 다루는 방법을 배워 대나무 모자를 만든 작품이다. 갖이나 샷모양 등 여러 형태의 미완성 모자들과 함께 진행과정을 소개하는 사진자료들로 코너를 꾸렸다.

또 광주 도심 곳곳을 물들인 어번폴리를 전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

다. 어번폴리의 현장 지도와 영상, 미니어처로 종합해서 소개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전광미 홍보사업장은 “이들 작품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생활 속에 담겨 있던 디자인의 가치를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062-608-42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로봇 축구대회도 한데요

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서 17~18일 한국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에서 17~18일 세계로봇축구대회의 한국대회인 ‘2011 FIRA Korea Cup’이 열린다.

세계로봇축구연맹(FIRA)과 (재)광주비엔날레가 공동주최하고 (사)대한로봇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로봇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인 메카트로닉스 분야와 관련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다.

세계로봇축구대회는 1995년 카이스트 김중환 교수로 로봇축구를 창안한 이래 1996년 11월 카이스트에서 첫 경기를 가졌다. 현재는 ‘FIRA Robot World Cup’란 이름으로 세계 51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4개 대륙 예선

전을 거쳐 세계대회를 치를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대회의 참가팀은 협회 홈페이지와 로봇축구 선수단 협의회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됐다.

종목은 ▲로봇축구의 대표 종목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 공을 상대편 골문에 넣는 마이크로(MiroSot) ▲미로로봇과 같은 기술로 운영되는 600g, 50cm 미만의 인간형 로봇축구 경기인 안드로이드(AndroSot) 경기다. 카이스트, 성균관대, 강원대, 강남대, 숭실대 등 6개팀 총 50여명이 참가해 경합을 벌이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진한 묵향... 추사체의 향연

추사체연구회 한문갑 광주지회장

17~20일 서울미술관서 개인전



서예가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년)는 시(詩), 서(書), 화(畵)에 뛰어난 조선의 대표 예술가다. 추사의 글씨는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하나의 예술 장르다.

(사)한국추사체연구회 광주지회회 한문갑 지회장이 오는 17~20일 서울 인사동 서울미술관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한 지회장은 묵향 가득 스며든 사자성이야 시 등 인생의 길잡이가 될 만한 게 우뚝을 준다.

또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필체로 넘쳐난 여백의 미와 서예의 진수를 선사한다.

그는 전국서화에술대전 초대작가, 세계서법문화에술대전 추천작가(대상), 동양서화문화에술대전 초대작가로 선정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22-24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직공원, 예술공원으로 재탄생한다

문화재단, 참여작가 5명 선정 건축 조형물 설치

광주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인 사직공원에 아름다운 건축 조형물이 들어선다.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1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사직국제 문화교류타운 조성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최근 공공예술프로젝트 참여 작가 선정 위원회를 열고 조민석 매스 스타디움 대표, 김영준 도시건축 대표, 이민아 협동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신혜원 로컬디자인 대표, 박동준 포에이건축사 대표 등 5인을 참여작가로 선정했다.

사직공원공공예술프로젝트는 이들 5명의 작가들이 공원 내 다섯 공간에 각각 공공 디자인이 가미된 작품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참여작가들은 지난달 두차례 기본구상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고, 재단은 사직공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미지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오는 16일 작가들과 기본구상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3일 열리는 광주도시건축문화제에서 작품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시부스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2012년 5월5일 어

린이날 개막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작가 선정위원회 심효상 위원장은 “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작가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사직공원을 적절히 해석하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조형물들을 통해 사직공원이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작가 5인 중 신혜원 대표와 조민석 대표는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초청 작가, 2010 상하이엑스포 한국관 설계 작가로 참여했고 김영준 대표는 한국건축가협회상, 김수근건축상을 수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등가요제’ 열려요~

30일, 구도청 앞 총장축제 특설무대

예향 광주를 알리고 신인가수를 발굴하기 위한 ‘제7회 무등가요제’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동구 구도청 앞 총장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회장 김효중)가 주최하는 이번 가요제에서는 초대가수 한혜진·배일호·최유나·이혜리 등 신인가수의 공연과 밸리댄스 공연 등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만 17세 이상, 48세 미만의 남·녀로 가수협회증이 없고 레코드 취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명, 금상 1명 총 6명의 수상자에게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신인 가수 육성 프



로그램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3일까지 신청서를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 사무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예선은 24일 광주 KT정보통신센터 3층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문의 062-529-77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10월 18일까지 30% SALE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모든 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 독점 수입) (주)홍스페이스는 100%이태리 친환경 엔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스페이스 SPACE

광주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동구청-전여고사이) SINCE 1992 100% 이태리 가구 직수입 도 소매

☎ 062 226 7567